



◆ 광양역 맞이방 대형 TV 기증식

○ 기증식 개요

- 일 시 : 2026년 7월 22일(수), 11:00
- 장 소 : 광양역 맞이방
- 주요내용 : 75인치 TV 기증



광양상공회의소(회장 우광일)는 7월 22일(수) 오전 11시 광양역에서 한국철도공사 광양관리역 맞이방 내 대형 TV를 기증하고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기증은 광양역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쾌적한 역사 환경 조성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양역은 전남 동부권의 주요 철도 거점으로, 경전선 복선전철 개통 이후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KTX-이음 정차 추진 등 철도 인프라 확충이 이어지면서 지역 교통의 중심지이자 광양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광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은 “광양역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지역의 다양한 소식과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광양시 생활폐기물과 현장 근로자 추석 명절 선물 전달

○ 방문개요

- 일 시 : 2026년 9월 21일(월), 14:30
- 장 소 : 광양시 생활폐기물과
- 주요내용 : 광양시 생활폐기물과 현장 근로자 노고 격려 및 명절 선물 전달



광양상공회의소(회장 우광일)는 9월 21일(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광양시 생활폐기물 처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명절 선물을 전달했다.

이번 명절 선물 전달은 16만 광양시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현장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따뜻하고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됐다.

우광일 회장은 “16만 광양시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는 현장 근로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추석을 맞아 준비한 작은 정성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상공회의소는 그동안 생활폐기물 처리 현장 근로자들을 비롯해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사)광양YWCA 전국상의 ERT 공동챌린지 ‘그냥드림’ 사업 후원금 전달식

○ 방문개요

- 일 시 : 2026년 10월 16일(금), 14:00
- 장 소 : 광양상공회의소
- 주요내용 : 전국상의 ERT 공동챌린지 ‘그냥드림’ 사업 후원금 전달



광양상공회의소(회장 우광일)는 10월 16일(금) 오후 2시 광양상공회의소 회장실에서 전국상의 ERT 공동챌린지 ‘그냥드림’ 사업 운영기관인 (사)광양YWCA에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가 주도하는 전국상의 공동 사회공헌 프로젝트인 ‘공동챌린지’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전국 74개 상공회의소와 지역 ERT 회원기업이 참여하는 공동챌린지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공헌 확대를 위한 협력사업으로, 첫 번째 공동과제로 보건복지부의 ‘그냥드림’ 사업을 선정했다. 광양상공회의소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후원금 300만원 재정지원 방식으로 이번 공동챌린지에 동참했다.

‘그냥드림’ 사업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별도의 신청이나 소득 기준 없이 사업장을 방문해 기본적인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우광일 회장은 “이번 후원금이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광양상공회의소는 앞으로도 전국 상공회의소와의 협력은 물론, 지역 기업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광양상공회의소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교차기부’ 추진

- 목포상공회의소, 제주양돈농협과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교차기부 추진
- 2024년부터 시작, 회원사 임직원 참여를 통해 1억원 이상 상호 교차기부 성과

광양상공회의소(회장 우광일)는 목포상공회의소, 제주양돈농협과 함께 8월 24일(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교차기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호 교차기부 추진은 2024년 우광일 회장과 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이 개인 최고한도액인 500만원을 교차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제주양돈농협 고권진 조합장과 임직원이 520만원, 광양상공회의소 우광일 회장과 임직원이 600만원을 기부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지난해에는 회원사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규모가 확대되어 광양상의는 포항시에 5,600만원, 제주시에 2,300만원인 총 7,900만원을 기부하였고, 포항상의가 9,200만원, 제주양돈농협이 2,000만원을 교차 기부하며 광양시에 1억원 이상이 기부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올해 목포상공회의소와의 상호 교차기부 추진은 전남 동·서부권 경제계의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간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우광일 회장은 “그동안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교차기부에 동참해 주신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업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와 기부액의 30%인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이 제공되어 총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회원사 소식

▶ 회원사 창립기념일 안내(10월~12월)

창립일	업체명	창립일	업체명	창립일	업체명
10/01	(주)백제	11/03	(주)세명기전	12/01	아르고마린토탈(주)
10/01	에스엘피(주)	11/05	삼진기업(주)	12/01	(주)포스코이앤씨 광양사무소
10/01	(주)대광	11/05	(주)포스코엠씨머티리얼즈	12/01	(주)금풍공업
10/01	(주)지엘테크	11/07	동주종합건설(주)	12/01	(주)디와이이
10/01	혁성실업(주)	11/08	OCI(주) 광양공장	12/05	포트엘(주)
10/07	(주)에스앤지건설	11/10	(주)명신수도	12/06	(주)포렌
10/11	거명이앤씨(주)	11/10	광양청매실농원영농조합법인	12/07	(주)프롬스
10/12	(주)EEW KHPC	11/11	인선이엔티(주)광양	12/09	포스낙(주)
10/13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이앤에스	11/15	에스디글로벌(주)	12/09	농업회사법인 부저농원(주)
10/14	(주)효석	11/16	알엠테크(주)	12/10	(주)혜성티앤시
10/20	(주)대아엠	11/16	(주)한일종합상사	12/19	(주)광양테크
10/30	(주)금호전력	11/16	두원기업(주)	12/20	성무전력(주)
11/01	이앤티스소재(주)	11/17	(주)만보중공업	12/23	(주)F스퀘어 테라스몰 광양점
11/01	국민은행 동광양지점	11/20	광주은행 동광양금융센터	12/27	(주)포스코엠텍
11/01	구양실업(주)광양공장	11/23	(주)금호	12/29	(주)에어릭스 광양사업소
11/01	(주)한진	12/01	(주)광희		

※ 모범사원 표창 신청 안내

“광양상공회의소는 창립기념일을 맞이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모범사원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표창대상 : 회원사 임직원 (1명 추천)

○ 표창훈격 :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 신청방법 : 표창신청서 및 공적조서 작성 후 제출

○ 문 의 : 광양상공회의소 총무부, 061-793-0012

◆ 상공회의소 주요 동정

▶ 주요동향



민형배 통합특별시장
광양 철강 산업현장 방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기념
전남미술관 데이터사피엔스 개막식



제49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여수광양항 유관기관
합동마케팅 실무자회의(2차)



2026년 제1차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



2026년 '추석' 맞이 전통시장
민생현장 방문



제10대 광양시의회 의원 초청 간담회



순천세무서 정규명 서장 내방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배지연 청장 내방



광양경찰서 문대열 서장 내방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김원배 청장 내방

광양지역 기업 2026년 4분기 기업경기 전망지수 92.7P

- 2026년 4분기 전망지수 ‘92.7P’ 전분기 대비 24.6P 증가 *2026년 3분기 68.1p
- 판매·수주 여건 개선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 높아지며 기업심리 회복세
- 인건비·인력 확보 애로 지속, 세제혜택·투자지원 등 정책지원 필요

광양상공회의소(회장 우광일)가 지역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8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휴일제외 7일간) 조사한 ‘2026년 4/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 기업경기전망지수(BSI : Business Survey Index)’는 92.7P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전체 응답기업 중 전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이 19.5%인 가운데, 전분기와 비슷할 것 53.7%, 전분기보다 악화될 것 26.8%로 조사되었다.

이번 전망지수(92.7P)는 2026년 3/4분기(68.1P) 대비 24.6P 증가하였지만, 20분기(22년1분기~26년4분기) 연속 100 이하를 기록하였다.(전국 기준 85.9P, 전남 기준 91.5P)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기업들의 현장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200 사이로 표시되며, 100을 넘으면 이번 분기 경기가 전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100 미만이면 반대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함을 의미한다.

세부 경영지표별로는 매출액(83.0→102.2), 영업이익(66.0→98.9), 설비투자(91.5→96.7), 자금사정(59.6→98.9) 등 모든 지표가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액은 기준치인 100을 웃돌았으며, 영업이익과 자금사정도 기준치에 근접하는 등 전반적인 경영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실적(영업이익)이 당초 계획했던 연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목표 수준 달성’이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부 미달(10% 이내)’ 41.5%, ‘크게 미달’ 9.8%, ‘일부 초과 달성(10% 이내)’ 2.4% 순으로 조사됐다.

올해 목표치 달성에 있어 가장 큰 긍정 요인으로는 ‘판매·수주 여건 개선’이 59.5%로 가장 높았고, ‘원자재·에너지 등 생산비용 하락’ 13.5%, ‘금융비용 감소 및 자금조달 여건 개선’ 10.8%, ‘환율 안정’ 8.1%, ‘인건비 부담 완화 및 원활한 인력 확보’ 5.4%, ‘제도(규제, 인허가) 개선’ 2.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목표치 달성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인건비 증가 및 인력 확보 애로’가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판매·수주 여건 악화’ 20.9%, ‘원자재·에너지 등 생산비용 상승’ 18.6%, ‘기타(금융비용 증가 등)’ 6.9%, ‘환율 변동성’ 4.7%, ‘통상환경 악화’ 4.7%, ‘규제, 인허가 등 제도’ 2.3% 순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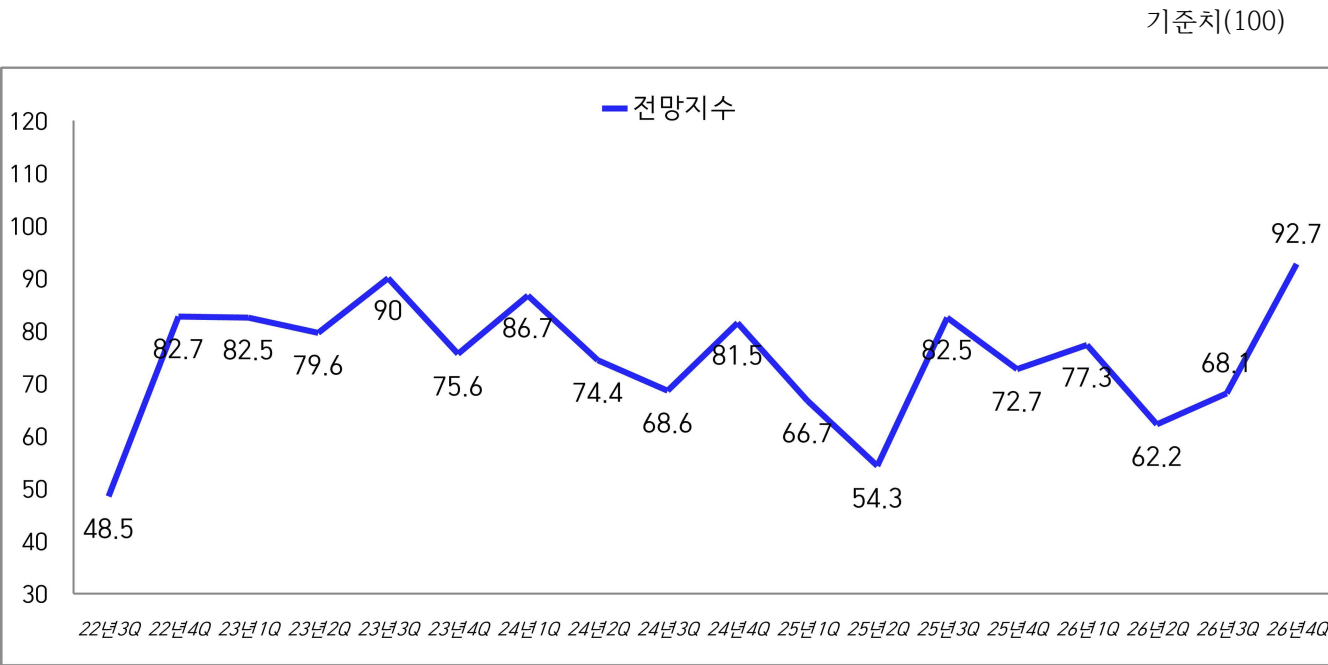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원·달러 환율 수준은 평균 1,314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조사 당시 참고 환율인 1,397.70원(8월 19일 15시 30분 종가 기준)보다 약 84원 낮은 수준으로, 기업들이 현재보다 낮은 원·달러 환율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의 수입 의존도를 조사한 결과, ‘없다(전량 국내 조달)’의 응답이 43.9%로 가장 높았으며, ‘10% 미만’ 29.3%, ‘10% 이상 20% 미만’ 9.8%, ‘20% 이상 30% 미만’ 9.8%, ‘30% 이상 40% 미만’ 4.9%, ‘50% 이상’ 2.3%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지역 소재 기업 세제혜택 강화(법인세 감면 등)’가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 투자 보조금·정책금융 확대’ 23.4%, ‘지역 소재 기업 대상 규제 완화(노동, 환경 규제 등)’ 17.1%, ‘위기 산업·지역 지원 확대’ 10.6%, ‘지역 산업 인프라 확충’과 ‘지역 인력난 해소’가 각각 8.5%, ‘지역 소재 기업 AI 전환 지원(스마트공장 등)’ 2.1% 순으로 조사됐다.

광양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판매·수주 여건이 점차 개선되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 상승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소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와 지역 투자 보조금·정책금융 확대 등 강력한 재정지원 정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광양시 기업경기전망지수(BSI) 추이



성명서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명목으로 여수광양항만공사를 비롯한 전국의 4개 항만공사(PA) 통합을 논의 중인 것에 대해, 광양 지역 경제계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는 현 정부가 표방해 온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이다. 또한, 그동안 정부를 신뢰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이끌어온 지역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배신감을 안겨주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다.

대한민국의 4대 항만은 저마다 고유한 입지와 배후 산업 구조에 맞춰 명확한 역할을 분담하며 발전해 왔다. 지역별 물류 특성과 산업 연계성을 무시한 강제 통합은, 각 항만의 특화 기능을 무력화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항만 물류 체계의 경쟁력을 퇴보시킬 뿐이다.

특히 여수광양항은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국가 기간산업을 견인해 온 ‘국내 1위의 수출입 관문 항만’이다. 광양제철소와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물류비를 절감하여 기업 경쟁력을 확보해 주었으며, 대규모 투자 유치 이끌어낸 지역 경제의 명실상부한 핵심 거점이다.

나아가 여수광양항의 독자성은 지역의 미래 먹거리인 이차전지, 수소, 반도체 등 첨단 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필수 요소이다. 기업의 물류 혁신을 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현장 맞춤형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독자 경영 체제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지금 광양만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과 함께,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할 여수광양항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과 민생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염원하는 지역민들의 기대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에 광양상공회의소와 지역 경제계는 지역의 성장 엔진을 멈추고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항만공사 통합 논의를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여수광양항이 국가 핵심 항만으로서 독보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독자적인 경영 자율성과 권한을 대폭 강화해 줄 것을 정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6년 8월 6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우 광 일

포스코 노사 상생,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대한민국 철강산업이 전례 없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 발 공급 과잉과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장벽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철강업계도 생존을 위한 자구 노력과 구조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포항제철소 제1제강공장에 이어 45년 넘게 가동해 온 1선재공장까지 폐쇄되면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철강산업의 위기가 산업 내부를 넘어 지역경제와 민생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엄중한 현실입니다.

광양도 예외가 아닙니다. 광양제철소와 연관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지역경제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 관련 지방소득세는 2022년 876억 원에서 지난해 156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인근 여수 역시 석유화학산업의 장기 불황으로 지역경제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경제가 벼랑 끝에 놓인 상황에서 포스코마저 노사 갈등과 파업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조가 오는 9월 부분파업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포스코의 무분규와 노사 상생의 전통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파업은 결코 포스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포스코광양제철소는 1987년 첫 쇳물을 생산한 이후 광양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수많은 협력업체와 근로자, 소상공인, 지역사회가 포스코와 함께 오늘의 광양을 만들어 왔습니다.

따라서 포스코의 노사관계는 기업 내부의 문제를 넘어 광양시민의 삶과 지역경제의 미래에 직결됩니다. 파업으로 조업에 차질이 발생하면 협력업체의 경영 악화와 고용 불안은 물론 소비 위축과 골목상권 침체 등 지역경제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포스코 노사 관계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금은 대립과 힘겨루기로 서로의 주장을 관철할 때가 아닙니다. 노사가 함께 감당해야 할 위기의 무게를 직시하고 해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정당한 요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산업 경쟁력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가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한 걸음씩 양보하는 상생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의 철강산업 위기는 노사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노사가 힘을 모아야 포스코의 경쟁력을 지키고, 일자리를 지키며, 지역경제의 기반도 지킬 수 있습니다.

불이 꺼진 용광로를 다시 살리는 데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번 무너진 지역경제와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포스코의 지속가능한 미래는 곧 광양의 지속가능한 미래입니다. 포스코의 경쟁력은 지역경제의 안정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에 광양상공회의소는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포스코 노사는 대립과 파업이 아닌 대화와 상생의 길을 선택해 주십시오.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지혜를 모아 조속히 교섭을 타결해 주십시오.

지금의 현명한 결단이 포스코의 경쟁력을 지키고,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며, 광양의 지역경제를 지키는 길입니다.

포스코와 지역사회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사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2026년 8월 26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우광일

이제는 파업을 멈추고 현업에 복귀해야 합니다

광양의 산업 현장을 바라보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철강산업이 사상 유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포스코 노동조합의 파업이 현실화됐습니다. 지역경제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포스코의 파업은 기업을 넘어 광양 전체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파업을 즉시 멈추고 현업에 복귀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철강산업은 노사 간 힘겨루기를 벌일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중국발 공급과잉과 저가 철강재의 공세가 지속되고,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해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내 철강업계 역시 생존을 위해 설비 감축과 구조조정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최근 포항제철소의 오랜 생산설비들이 잇따라 문을 닫은 것도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엄중한 신호입니다. 광양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광양제철소와 연관 산업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광양제철소 관련 지방소득세가 2022년 876억 원에서 지난해 156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지역경제가 이미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결코 포스코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포스코의 생산 차질은 협력업체의 일감과 매출 감소,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고, 근로자의 소득과 소비 위축은 지역 상권에도 타격을 줍니다. 하나의 산업에서 시작된 충격이 기업과 근로자, 소상공인과 시민의 삶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파업이 가져올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입니다.

산업의 경쟁력은 수십 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만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한번 약화된 생산 기반과 산업 생태계, 위축된 투자와 고용을 회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누적되고 포스코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면, 그 결과는 단순한 임금·단체협상의 승패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일자리가 줄고 기업이 떠나며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다면 광양의 미래를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포스코 노동조합에 촉구합니다. 파업을 즉시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해 주십시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요구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철강산업의 위기 속에서 생산현장을 멈추는 것이 과연 근로자와 지역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길인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파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파업으로 잃게 될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포스코 역시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합니다. 노조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성실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은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포스코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일자리, 협력업체의 생존과 광양의 지역경제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포스코는 광양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1987년 광양제철소가 첫 쇳물을 생산한 이후 수많은 기업과 근로자, 시민이 포스코와 함께 오늘의 광양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기에 포스코의 위기는 곧 광양의 위기이며, 포스코의 경쟁력은 지역경제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이 점을 노사 모두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갈등이 길어지고 생산 차질이 누적되면 파업이 끝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떨어진 기업의 경쟁력과 한번 줄어든 일자리, 한번 무너진 지역경제의 활력은 쉽게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지금의 선택은 단순한 노사협상의 선택이 아닙니다. 포스코의 미래와 광양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포스코 노동조합은 파업을 즉시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해 주십시오. 포스코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하고, 노사는 하루라도 빨리 대화와 타협으로 이 사태를 끝내주십시오.

더 이상 지역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멈추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으면 그 대가는 노사만의 몫이 아니라 광양의 기업과 근로자, 협력업체와 소상공인, 시민 모두의 몫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서로를 이길 때가 아닙니다. 함께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2026년 9월 9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우광일

◇ 광양상의 지원사업 안내

▶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지원 대상

-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비수도권 소재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 5인 미만도 가능
 - *** 비수도권 지역 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따른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은 참여 가능함

□ 지원 요건

- (정규직 채용)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
 - 인턴 등의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3개월 종료 즉시 전환한 경우 포함)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최소고용유지기간)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기타) 감원 방지, 최저임금 준수, 주 28시간 이상 근로 등

□ 지원 내용

- (기업) 신규채용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청년) 정규직 채용(전환) 후 6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원
 - 고용유지 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차 각 120만원씩 지원
- (지원 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월말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 (예시) 평균 피보험자 수 8.3명 → 기준 피보험자 수 9명 → $9 \times 0.5 = 4.5$
→ 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지원 한도 5명으로 인정

□ 지급 주기

- 6개월(1회차, 360만원) → 3개월(2회차, 180만원) → 3개월(3회차, 180만원)
 - * 청년은 6개월(120만원), 12개월(120만원), 18개월(120만원), 24개월(120만원) 지급

□ 참여 신청 : 2026년 01월 01일 이후 신규채용(정규직) 후 신청

*단, 예외적으로 청년채용 이후 참여신청 하는 경우,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채용된 청년만 신청 가능

*계약직으로 채용시 참여가능 여부 운영기관 문의

□ 참여 방법 : 고용24(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광양상공회의소)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 문 의 : 광양상공회의소 061-761-5230

2026

대한상공회의소 자격검정 시행일정



상시시험

종 목	검정방법	등급	원서접수	시험일	발표일
워드프로세서	필기	단일등급	개설일로부터 시험일 4일 전까지	상시	• 필기: 익일 10시 • 실기: 매주 수요일~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 응시한 경우 그로부터 2주 후 화요일 오전 10시 • 경영정보시각화능력 실기: 시험일로부터 51일 후 월요일 10시
	실기	단일등급			
컴퓨터활용능력	필기	1·2급			
	실기	1·2급			
전산회계운용사	필기	1·2·3급			
	실기	1·2·3급			
비서	필기	1·2·3급			
무역영어	필기	1·2·3급			
상공회의소 한자	필기	1~9급			
경영정보시각화능력	필기	단일등급			
	실기	단일등급			

※ 전산회계운용사 1급 실기: 4월 18일, 10월 10일 ※ 전산회계운용사 1급 필기·비서·무역영어: 5월·8월·11월 매주 일요일

※ 경영정보시각화능력: 필기 1월·4월·7월·10월, 실기 2월·5월·8월·11월 / 지정주 토요일

※ 상공회의소 한자: 1~3급은 공인민간자격, 4~9급은 등록민간자격 ※ 시험 개설 여부는 지역 상공회의소별 상황에 따라 다름

국가기술자격 정기시험

종 목	회별	검정방법	등급	원서접수	시험일	발표일
한글속기 (1·2·3급)	1회	실기	1·2·3급	03.05~03.11	03.28	04.28
	2회	실기	1·2·3급	08.13~08.19	09.05	10.06
전자상거래 관리사 (1·2급)	1회	필기	1·2급	05.21~05.27	06.13	07.02
	1회	실기	1·2급	09.24~09.30	10.17	11.17
전자상거래 운용사 (단일등급)	1회	필기	단일	05.21~05.27	06.13	07.02
	1회	실기	단일	09.24~09.30	10.17	11.17

국가전문자격 정기시험

종 목	회별	검정방법	등급	원서접수	시험일	발표일
유통관리사 (1·2·3급)	1회	필기	2·3급	04.16~04.22	05.09	06.09
	2회	필기	1·2·3급	07.30~08.05	08.22	09.22
	3회	필기	2·3급	10.22~10.28	11.14	12.15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단일등급)	1회	필기	단일	04.30~05.06	05.23	06.22
	2회	필기	단일	08.27~09.02	09.19	10.19

※ 자격발급기관: 대한상공회의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 정기시험 환불규정

- 접수기간 내 환불신청: 100% 환불 / 시험일 기준 5일전까지 신청: 수험료 50% 환불, 접수수수료 환불 불가 / 시험일 기준 4일전부터 환불 불가
(예) 시험일이 10일인 경우 6일부터 환불 불가

※ 종목별 검정수수료 등은 홈페이지 참고



"상공회의소 자격시험 접수도 모바일 앱으로"
Korcham Pass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대한상공회의소

문의전화 | 02-2102-3600

홈페이지 | <https://license.korcham.net>

법정의무교육

무료!!

상공회의소 회원사라면

상공회의소 회원사	A사	B사
무료	200만원	190만원
	과정별 합산	패키지형

※ 법정의무교육 5개 과정, 연 1회 수강, 100인 기업, 공시 판매가격 기준
단, 실제 기업별 계약 조건 및 비용은 달라질 수 있음.



- 대상**
- 상공회의소 회원사
- 참여 혜택**
- 콘텐츠 무료 제공, 수료증 발급
 - 유료콘텐츠 20% 할인쿠폰 지급
-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교육개발팀
T. 02-6050-3493, 3457 E. jwlee@korcham.net

대한상공회의소 비즈캠퍼스(KCCI BizCampus)는

최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법정의무교육

안전하고 즐거운 직장 생활, 여기서 시작하세요!

- ▶ 개인정보보호, 장애인 인식 개선,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퇴직연금 5개 과정 (회원사 무료)



직무 혁신

내 커리어에 날개를 달자! Skill-Up

- ▶ 경영기획, 인사/총무, 마케팅/영업, 재무/회계/원가
조직문화/성과관리 등 70개 과정



AI&데이터

실무에 꼭 필요한 AI&데이터 교육을 한 번에!

- ▶ AI 개발/코딩, AI 툴, 데이터분석/자동화/시각화
콘텐츠 생성 등 150개 과정



자격증

전문가로 가는 첫 걸음, 나를 증명하는 자격증 취득!

- ▶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기사, 빅데이터분석기사
외국어, 한국어 등 110개 과정



Trend & Insight

트렌드를 알고 미래를 준비하자!

- ▶ AI/테크, 경제/산업, ESG/지속가능경영
자기개발/라이프 등 40개 과정



상공회의소 회원사에는

20% 특별할인 혜택 제공!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적의 교육 효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비즈캠퍼스

bizcampus.korcham.net

가. 신청대상 : 상공회의소 회원사 (회비 납부사)

나. 모집 및 이용기간 : ~ 2026. 12. 31.(목)까지 (상시)

다. 참여혜택 : 콘텐츠 무료 제공, 수료증 발급, 20% 특별할인 혜택(쿠폰지급, 무제한)

라. 참여방법 : 참여신청서 작성 후 메일 회신(seoih22@korcham.net)

*참여신청서 양식 광양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회원가입 및 비즈캠퍼스 수강권 지급 등 시스템에서 일괄 진행하므로, 별도가입 하지 않아도 됩니다.